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자기정서의 경험

장은영 한덕웅
성균관대학교

사회비교의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가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들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두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비교대상(상향/하향) × 비교결과(성공/실패)의 2 × 2의 이원 완전무선 요인설계에 따라서 조건별로 각 정서를 얼마나 높게 경험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27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사회비교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강도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정적정서로는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는 기쁨정서, 우울정서 및 안도정서의 3요인 구조가 타당화되었고, 부정적정서로는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는 당혹정서, 우울정서, 분노정서, 열등정서, 자기연민정서 및 불안정서가 타당화되었다. 연구 2에서는 실험을 통해 2(사회비교의 목표: 자기향상/자기방어) × 2(비교대상: 상향/하향) × 2(비교결과: 성공/실패)의 삼원 완전무선 요인설계로 정서경험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조건별로 15명씩 무선으로 배정하여 연구 1에서 개발한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여 얻은 값을 분석한 결과에서 중요한 가설들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한 조건에서 상향비교하여 성공하면,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한 조건에서 상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보다 기쁨정서를 더 높게 경험했다. 또한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한 조건에서 상향비교하여 실패하면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한 조건에서 상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보다 열등정서를 더 높게 경험했다. 그리고 하향비교하여 성공하면 상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보다 안도정서를 더 높게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한 조건에서 하향비교하여 실패하면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한 조건에서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보다 우울정서를 더 높게 경험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 도 논의하였다.

주요어: 사회비교, 자기정서, 정서경험, 사회비교 동기, 비교동기의 충족, 사회비교목표, 사회비교대상

본 연구는 사회비교의 결과로 자기에 관한 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여러 사회비교 상황에서 각각 특출하게 경험하는 정서들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다음으로 사회비교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에 따라서 정서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가설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그리고 비교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결과에 따라서 우세하게 경험하는 자기정서의 종류가 강도가 달라진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사회비교에 관한 이론들(Festinger, 1954; Wills, 1981)이 제안된 이후로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의 대상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실증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한덕웅, 1999; 장은영, 한덕웅, 1999, 2004; Festinger, 1954; Hakmiller, 1966; Radloff, 1966; Wheeler, 1966; Trope, 1980; Levine & Green, 1984; Testa & Major, 1990; Buunk, Schaefel, & Ybeman, 1994; Trope & Neter, 1994; Dunning, 1995; Taylor, Wayment, & Carillo, 1996). 비교대상의 선택에 초점을 두는 이 연구들과 달리 최근에는 비교 후 경험하는 정서나 자기평가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비교의 과정을 거쳐서 경험하는 정서나 자기평가에 중점을 두는 연구들이 최근

장은영, 한덕웅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이 연구는 두 번째 필자의 지도를 받은 첫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가운데 일부로 수행되었다.

교신저자: 장은영,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수선관 7층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2) 760-0485, E-mail: jey98@chol.com

에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들을 이전의 연구들과 대비시켜서 신사회비교이론(neo-social comparison theor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Wheeler, 2000).

사회비교와 정서경험을 연결시켜서 다룬 초기 연구들은 주로 상향비교나 하향비교 후 경험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정서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Wills(1981)의 하향비교이론이 제안된 이후 하향비교의 결과로 부정정서가 감소하는지 알아보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들 가운데 Wills(1981)의 제안대로 하향비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적정서와 관련있는 주관안녕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Wills, 1981; Wood, Taylor & Lightman, 1985; Wheeler & Miyake, 1992)도 보고된 바 있으며 하향비교 이전보다 하향비교 이후에 기분을 측정하면 부정정서가 감소한다는 결과들(Wills, 1981; Aspinwall & Taylor, 1993; Reis & Gibbons, 1993)도 있다.

한편, 하향비교와는 달리 상향비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분이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하향비교와 상반되게 상향비교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지며(Aspinwall & Taylor, 1993), 상향비교 대상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증가하고(Testa & Major, 1990), 질투(Salovey & Rodin, 1984; Reis & Gibbons, 1993)를 느낀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Morse & Gergen, 1970; Marsh & Parker, 1984; Alicke, LoSchiavo, Zerbst & Zhang, 1997; Kurman & Eshel, 1998; Lassiter & Munhall, 2001), 주관안녕이 낮아진다(Wheeler & Miyake, 1992)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사회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정서의 경험이 달라진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가정에 근거하는 연구들과 달리 최근 연구들 가운데 비록 사회비교 과정에서 비교대상이 일정하더라도 여러 조절변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이 가정에 근거를 두는 연구들에서는 비교대상에 따라서 정서의 종류와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게 되는 중요한 변인들을 알아내려고 한다.

사회비교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들

상향비교 혹은 하향비교 후에 경험하는 정서를 알아본 연구들 가운데 상향비교가 항상 기분이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하향비교는 언제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부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Tesser, Miller & Moore, 1988; Buunk et al., 1990).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에서는 위협을 경험한 후에 하향비교하면 조건에 따라서 부정정서가 감소하기도 하고(Gibbons & McCoy, 1991; Aspinwall & Taylor, 1993), 증가하기도 하여서(Wood, Giordano-Beech, Taylor, Michela & Gaus, 1994)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되지 못했다.

사회비교의 대상과 정서 효과가 항상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연구자들은 상향비교 혹은 하향비교 후에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들을 알아내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변인들로 향상가능성과 통제감 요인을 들 수 있다. 먼저 이 변인을 다룬 국내 연구로 한덕웅과 임광은(2002)에서는 하향비교하여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였더라도 하향비교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수행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면 향상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할 때보다 부적인 정서경험이 더 낮았다.

그리고 Buunk, Collins, Taylor, VanYperen 및 Dakof(1990)는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비교에서 통제가능성의 지각에 따라서 정서경험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평소에 사회비교하는 빈도를 응답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비교 후에 경험하는 정서,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통제한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통제감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사회비교 이후에 부정정서를 더 낮게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상향비교나 하향비교와 같이 사회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정서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고, 응답자들이 모두 질병을 지니고 있는 암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이와 유사하게 Testa와 Major(1990)의 연구에서는 통제감을 낮게 지각한 조건에서 상향비교보다 하향비교 후에 정적

정서를 더 높게 경험했다. 이 결과를 보면 동일한 실패환류를 받았어도 이후 수행에 대해서 통제감을 낮게 지각하면 상황비교보다 하향비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상황비교보다 하향비교하고 나서 정적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실패환류를 받아서 자기방어동기가 우세해진 상황이었으므로 이 조건과 달리 자기 향상동기나 자기평가동기가 우세해진 상황에서 통제감의 지각이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변인들은 주로 사회비교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요인들이다. 이와 달리 사회비교가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차 요인으로 설명하면서 자주 다룬 변인이 자존심이다. 일례로 Gibbons와 McCoy(1991)의 연구에서는 높거나 혹은 낮은 위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향비교한 후에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하향비교 이후에 정서가 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자존심은 낮으면서 높은 위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Aspinwall과 Taylor(1993, 연구 2)의 연구에서는 학업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한 조건에서 자존심이 사회비교로 초래되는 정서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를 보면 최근 학업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만성적으로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보다 하향비교하고 나면 부정정서를 덜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 두 연구들(Gibbons & McCoy, 1991; Aspinwall & Taylor, 1993)에서 하향비교한 결과를 직접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비교는 대체로 자신이 더 낮다고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 그렇다면 이들이 조작한 하향비교는 실질적으로는 하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을 다룬 셈이 되므로 이 연구를 비교결과에 상관없이 하향비교가 초래하는 효과라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요약한 연구들을 보면 상황비교 혹은 하향비교의 주효과에 의해서 정서경험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양한 조절변인들이 연구되어 온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의 자기조절 과정이론(한덕웅, 1999; 한덕웅, 장은영, 2003)에 근거하여 선행연구들을 설명하고 가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서경험을 알아본 선행연구들을 사회비교의 자기조절 과정으로 보면 사회비교의 목표개입 경로가 작동하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는 변인들을 주로 다루었다. 앞에서 살펴본 Testa와 Major(1990)의 연구 결과를 사회비교의 자기조절 과정이론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비교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통제감이 낮다고 지각하면 사회비교의 목표개입 경로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방어동기가 높아지므로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세해진 자기방어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하지 않은 상황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자기방어동기가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을 경험하므로 이로 인해 부정정서의 경험이 더 높아진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사회비교의 목표개입 경로 이외에 사회비교의 목표설정 경로도 역시 정서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차 변인이 비교 후 경험하는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비교의 목표설정 경로로 설명할 수 있다. 만성적으로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은 지속해서 하향비교의 목표가 설정된 경우이므로 하향비교에 대한 개입수준이 본래 높아서 하향비교를 더 추구하며 실제로 하향비교하게 되면 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즉 비교의 목표설정 경로가 비교의 결과로 경험되는 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자존심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회비교의 자기조절 과정이론으로 보면 목표설정과 목표개입의 두 경로를 통해서 우세해진 사회비교의 동기가 비교 과정을 거치면서 충족된 수준이 높을수록 정적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우세해진 비교동기가 충족된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사회비교의 결과로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사회비교의 목표설정 경로와 사회비교 목표개입 경로가 작동하여 특정한 사회비교 동기가 우세해지면 적합한 비교대상을 선택하여 우세해진 비교동기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비교의 결과로 우세한 비교동기가 충족되면 정적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우세해진 비교동기가 충족되지 못하면 부정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니는 사회비교의 동기, 비교대상, 비교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결과 등에 따라서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 근거를 두고 사회비교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정서가 우세하게 나타나는지 예측하는 가설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기로 한다. 이 가설을 검증하려면 사회비교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 혹은 유형을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비교 후 경험하는 정서를 알아본 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 차원의 측정치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서 사회비교의 대상이나 비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서들이 차별적으로 경험되는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 비교대상과 통제감지각 수준에 따라서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를 분류한 이론 연구(Smith, 2000)가 있었지만, 이를 경험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과정에서 사회비교의 동기가 충족된 수준에 따라서 정서경험이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비교 상황에서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서경험을 알아본 선행연구들은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선행연구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알아본 정서 측정치들은 사회비교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알아보는데 적절한지 불명확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비교 상황에서 특히 잘 경험되는 정서를 알아보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사회비교에 따른 정서경험의 측정척도

본 연구에서는 비교 후 비교동기의 충족수준에 따라서 정적정서 혹은 부정적정서의 종류나 경험 수준이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사회비교 후에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려는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Smith, 2000). 사회비교 후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에 대해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과거 연구를 개관하고 본 연구에서 예상하는 바를 정리하고자 한다.

한덕웅과 장은영(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에 따라서 비교 후 경험하는 자기정서가 달라지는 현상을 알아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불안에 가까운 정서인 초조정서에 대해 사회비교 목표, 성공실패의 경험 및 사회비교 대상이 미치는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수행에서 성공하면 실패한 조건보다 상향비교나 유사비교 대상과 사회비교하는데 대해서 초조함을 덜 경험했다. 자기평가목표를 설정하고 수행에서 성공하면 실패한 조건보다 상향비교 대상과 사회비교하는데 대해서 초조함을 덜 경험했다. 그러나 자기방어목표 조건이지만 수행에서 실패하면 성공한 조건보다 유사비교 대상과 비교하는데 대해서 초조함을 덜 경험했다. 그리고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수행에서 실패하면 성공한 조건보다 유사비교나 하향비교 대상과 사회비교하는데 대해서 초조함을 더 경험했다. 이 연구에 기초하여 보면 직접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자기방어목표가 설정되고 수행에서 실패한 조건은 자기방어동기가 가장 우세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기방어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초조정서를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강하게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사회비교 후 자기방어동기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조정서가 더욱 강하게 경험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이전의 선행연구와 달리 정서를 다루면서 자기에 관한 부정적정서를 세분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이 측정치들이 과연 사회비교 과정에서 경험되는 정서를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들의 선행연구(2000)에서는 Higgins의 조절초점이론(1996)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자기정서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회비교 과정으로 확장하는 데는 제한이 따른다. 먼저 조절초점이론에서는 당위자기(ought self) 혹은 이상자기(ideal self)와 차이를 지각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정서를 다루고 있으나 사회비교 과정에서 항상 당위자기 혹은 이상자기가 지침이 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비교 과정에서는 자신보다 못한 하향비교 대상이 존재하거나 상향비교 대상보다 자신이 더 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초조나 낙담정서보다는 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Smith(2000)는 비교대상, 통제감 및 비교의 초점에 따라서 경험되는 정서들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분류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상향비교에서 통제감지각이 높으면 자신에 대해서 낙관(optimism)을 경험하고 비교대상에 대해서는 존경(admiration)을 경험한다. 반면에 상향비교에서 통제감지각이 낮으면 자신에 대해서 우울한 수치심(depressional shame)을 경험하고 비교대상에 대해서는 질투심(envy)을 경험한다. 또한 하향비교에서 통제감지각이 높으면 자신에 대해서 긍지(pride)를 경험하고 비교대상에 대해서는 경멸이나 멸시(contempt, scorn)를 경험한다. 반면에 하향비교에서 통제감지각이 낮으면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걱정(fear, worry)을 경험하고, 비교대상에 대해서는 연민(pity)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 내용도 실증연구를 통해서 직접 검증한 바 없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 후 사회비교 동기가 충족된 수준에 따라서 정서경험이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 측정치들 가운데 먼저 사회비교 과정에서 더 잘 경험되는 정서들을 추출한 후 사회비교 동기의 충족수준에 따라서 정서경험이 본 연구의 가설과 일관되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후 사회비교 동기의 충족수준에 따라서 정서경험의 수준과 종류가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먼저 Higgins(1996)의 조절초점이론, 한덕웅과 장은영(2000)의 실험연구 및 Smith(2000)의 제안에 기초하여 세 가지 사회비교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동기가 충족되거나 좌절을 겪음에 따라서 우세하게 경험되는 정서의 종류가 다르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자기향상동기가 우세한 조건에서 이 동기가 충족되면 자기향상에 기여하는 성취감, 열망 및 포부감과 같은 정적정서가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자기향상의 동기는 상향비교하여 결과가 좋을 때 충족수준이 더욱 높아지므로 이 조건에서 기쁨이나 성취감을 경험하는 수준이 가장 높을 것이다. 다만 자기향상의 동기가 우세하였으나 이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하지 않은 유사비교한 결과가 좋을 때에는 상향비교한 조건보다는 충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므로 기쁨이나 성취감을 경험하는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자기향상의 동기가 우세하였으나 이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하향비교한 결과가 좋을 때에는 이 동기의 충족수준이 매우 낮아지므로 이 조건에서 기쁨이나 성취감을 경험하는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향상동기가 우세한 조건에서 이 욕구가 좌절되면 열등감이나 낙담과 같은 부정적정서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향상의 동기는 상향비교하여 결과가 나쁠 때 충족수준이 더욱 낮아지므로 이 조건에서 열등감을 경험하는 수준이 가장 높을 것이다. 다만 자기향상의 동기가 우세하였으나 이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하지 않은 유사비교한 결과가 나쁠 때에는 열등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기향상의 동기에 비해서 자기평가의 동기의 충족수준이 더 낮아지므로 당혹감이나 불확실감과 같은 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향상의 동기가 우세하였으나 이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하향비교한 결과가 나쁠 때에는 열등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기향상의 동기에 비해서 자기방어의 동기의 충족수준이 더 낮아지므로 우울이나 불안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게 된다.

자기방어의 동기가 우세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동기가 충족되면 안도감과 같은 정적정서가 높아진다. 그리고 자기방어의 동기는 하향비교하여 결과가 좋을 때 충족수준이 더욱 높아지므로 이 조건에서 안도감을 경험하는 수준이 가장 높을 것이다. 다만 자기방어의 동기가 우세하였으나 이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하지 않은 유사비교하거나 상향비교한 결과가 좋을 때에는 자기방어의 동기 이외에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이 높아져서 기쁨이나 성취감을 경험하는 수준이 오히려 높을 것이다. 특히 유사비교하는 조건보다 상향비교하는 조건에서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이 더 높을 것이므로 기쁨이나 성취감을 경험하는 수준도 더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방어동기가 우세한 조건에서 이 욕구가 좌절되면 우울, 수치심 및 초조와 같은 부정적정서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방어의 동기는 하향비교하여 결과가 나쁠 때 충족수준이 더욱 낮아지므로 이 조건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수준이 가장 높을 것이다. 다만 자기방어의 동기가 우세하였으나 이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하지 않은 유사비교하거나 상향비교한 결과가 나쁠 때에는 자기방어의 동기 이외에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이 낮아져서 열등감을 경험하는 수준이 오히려 높을 것이다. 특히 유사비교하는 조건보다 상향비교하는 조건에서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이 더 낮을 것이므로 열등감을 경험하는 수준도 더 높을 것이다.

자기평가의 동기가 우세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동기가 충족되면 확신감과 같은 정적정서가 높아진다.

반면에 이 욕구가 좌절되면 혼란스러움 및 불확실감과 같은 부정정서가 높아질 것이다. 다만 자기평가의 동기가 충족되거나 좌절되는 상황은 자기향상이나 자기방어의 동기와는 다르다. 다시 말해서 자기향상이나 자기방어의 동기는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대상과 비교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충족수준이나 좌절수준이 달라진다. 하지만 자기평가의 동기는 사회비교의 결과가 성공인지 혹은 실패인지 여부에 따라서 충족수준이나 좌절수준이 달라지기보다는 사회비교의 결과가 명확한지 혹은 일관적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비교하여 명확하거나 일관적이거나 혹은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되면 자기평가 동기의 충족수준이 높아져서 확신감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에 비교한 결과가 모호하거나 비일관되면 자기평가동기의 좌절수준이 높아져서 혼란스러움이나 불확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앞서 자기향상의 동기 혹은 자기방어의 동기가 우세한 상황에서 상향비교, 유사비교 혹은 하향비교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한 조건을 예측했다. 자기평가의 동기가 우세한 상황에서 사회비교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한 조건에서 사람들이 그 비교결과가 명확하거나 혹은 일관적이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여 이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확신감 혹은 불확실감이 어떻게 높아지거나 낮아질지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평가의 동기가 우세한 조건에서 유사비교하여 성공하면 유사비교는 자기평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확신감을 높게 경험하게 된다. 또한 상향비교하여 성공하면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이 높아지므로 기쁨을 높게 경험할 것이다. 반면에 자기평가의 동기가 우세한 조건에서 하향비교하여 성공하면 방어동기의 충족수준은 높아지므로 안도감을 높게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더 우수했다는 결과는 자기평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못하므로 평가동기의 충족수준은 낮아서 확신감을 경험하는 수준은 낮다.

한편 자기평가의 동기가 우세한 조건에서 상향비교하여 실패하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지므로 평가동기의 충족수준은 낮아진다. 또한 이 조건에서는 향상동기의 충족수준도 더욱 낮아지므로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평가의 동기가 우세한 조건에서 유사비교하여 실패하면 이 경우에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지므로 평가동기의 충족수준이 낮아지므로 혼란스러움과 불확실감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의 동기가 우세한 조건에서 하향비교하여 실패하면 정확하게 자기평가하기 어려워져 자신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경험하므로 평가동기의 충족수준이 낮아진다. 또한 방어동기의 충족수준도 역시 낮아지는데, 이로 인해서 이 조건에서는 혼란스러움이나 불확실감과 같은 정서들을 높게 경험할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따라서 각 조건에서 유발되는 정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회비교 동기의 충족 및 좌절에 따라서 경험되는 정서들

사회비교 동기	충족 및 좌절 조건	
	충족수준이 높을 때	좌절수준이 높을 때
자기향상동기	기쁨 (혹은 성취감)	열등감
자기평가동기	확신감	불확실감
자기방어동기	안도감	우울(혹은 수치심, 초조)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1에서는 먼저 조사를통하여 사회비교 과정에서 각 사회비교 동기가 충족되거나 좌절될 때 경험하는 정서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사회비교의 목표가 설정되고 특정한 비교대상과 비교한 후에 성공 혹은 실패와 같이 비교결과를 환류받는 조건에서 이 가설들과 일관되는 정서경험이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향상이나 자기방어의 동기는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대상과 비교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충족수준이나 좌절수준이 달라지지만, 자기평가의 동기는 사회비교의 결과가 명확한지 혹은 일관적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공 혹은 실패와 같은 비교결과와 함께 자기향상과 자기방어의 목표를 다루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기향상목표 혹은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 혹은 하향비교의 대상과 비교한 후에 비교대상

보다 잘했거나 못했다는 성공/실패의 결과를 알게 된 조건에서 정서경험을 측정하여서 본 연구의 가설들이 지지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각각의 정서경험 수준이 가장 높은 조건에 대해서 예상한 가설들이 도출된 배경을 설명하기로 한다.

사회비교의 결과로 경험하는 정서에 관한 가설

먼저 사회비교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서 주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교대상보다 자신이 더 잘하여 성공하면(이하 ‘성공’이라고 칭함), 비교동기가 충족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좌절의 가능성은 낮다. 반면에 비교대상보다 자신이 더 못하여 실패하면(이하 ‘실패’라고 칭함), 비교동기가 좌절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충족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비교결과의 주효과): **가설 1-1.** 비교에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기쁨정서 수준이 더 높다. **가설 1-2.** 비교에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열등정서 수준이 더 높다. **가설 1-3.** 비교에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안도정서 수준이 더 높다. **가설 1-4.** 비교에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우울정서 수준이 더 높다.

다음으로 표 1에 제시된대로 각 사회비교 동기가 충족되거나 좌절된 경우에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진다고 가정하므로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향비교하여 성공하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쁨은 자기향상동기를 충족시켜주는데 적합하지 않는 하향비교에 성공했을 때보다 자기향상동기를 충족시켜주는데 적합한 상향비교에 성공했을 때 높아질 것이다. 반면에 열등감은 자기향상동기를 충족시켜주는데 적합하지 않는 하향비교에 실패했을 때보다 자기향상동기를 충족시켜주는데 적합한 상향비교에 실패했을 때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향비교하여 성공하면 안도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안도감은 자기방어동기를 충족시켜주는데 적합하지 않는 상향비교에 성공했을 때보다 자기방어동기를 충족시켜주는데 적합한 하향비교에 성공했을 때 높아질 것이다. 반면에 우울은 자기방어동기를 충족시켜주는데 적합하지 않는 상향비교에 실패했을 때보다 자기방어동기를 충족시켜주는데 적합한 하향비교에 실패했을 때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비교결과에 따른 비교대상의 단순 주효과): **가설 2-1.** 상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 하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보다 기쁨정서 수준이 더 높다. **가설 2-2.** 상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보다 열등정서 수준이 더 높다. **가설 2-3.** 하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 상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보다 안도정서 수준이 더 높다. **가설 2-4.**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상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보다 우울정서 수준이 더 높다.

또한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영향은 사회비교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면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했을 때보다 자기향상동기가 더 우세해진다.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에 성공하면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했을 때보다 자기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이 높다. 따라서 기쁨도 더 높아진다. 반면에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에 실패하면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했을 때보다 자기향상동기의 좌절수준이 높다. 따라서 열등감이 더욱 높아진다.

그리고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면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했을 때보다 자기방어동기가 더 우세해진다. 이로 인해서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에 성공하면 자기방어동기의 충족수준이 높다. 따라서 안도감이 더욱 높아진다. 반면에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에 실패하면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했을 때보다 자기방어동기의 좌절수준이 높다. 따라서 우울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비교대상과 비교결과에 따른 사회비교 목표의 단순단순주효과): **가설 3-1.** 상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에서는,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했을 때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했을 때보다 기쁨정서 수준이 더 높다. **가설 3-2.** 상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에서는,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했을 때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했을 때보다 열등정서 수준이 더 높다. **가설 3-3.** 하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에서는, 자기방어목표

를 설정했을 때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했을 때보다 안도정서 수준이 더 높다. **가설 3-4.** 하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에서는,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했을 때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했을 때보다 우울정서 수준이 더 높다.

연구 1: 사회비교의 대상과 결과에 따른 정서경험의 척도개발

다양한 사회비교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들을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 측정치들 중 사회비교 과정에서 우세하게 경험하는 정서들을 추출한 후 각 사회비교 동기의 충족수준에 따라서 각 정서경험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비교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용어를 가려내고, 각 조건별로 정서경험을 측정하였다.

연구 방법

참여자: 본 조사는 서울지역 3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280부 가운데 27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9%이었다.

조사 방법: 조사는 심리학 분야의 강좌를 담당한 교수가 실시 지침에 따라 실시하였다. 질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조사 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한다고 알려주었다.

조사는 2002년 12월 1일부터 2002년 3월 3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질문지 구성: 강혜자와 한덕웅(2000)의 한국어 정서용어 중에서 405개를 추출하고, 연구자들이 이 가운데 사회비교 과정에서 자기 혹은 비교대상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용어를 147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147개 각각의 정서를 4가지 조건에서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는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4개 조건은 비교대상(상향 하향) × 비교결과(성공 실패)의 2 × 2의 설계에 따라 작성되었다. 참가자에게 학업능력과 관련된 차원에서 각 조건에 해당하는 비교대상을 떠올리도록 설명하고 각 조건에서 여러 정서들을 각각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 7점척도(0: 전혀 느끼지 않는다, 6: 매우 많이 느낀다)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4개 조건들 가운데 한 조건에 해당하는 질문지에만 응답하였다.

분석 방법: 실험연구에서 능력차원에서 나타나는 비교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능력 차원에 응답한 275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공통변량의 시초값을 중다상관자승(SMC)으로 하는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를 정할 때는 누적분산비율과 scree plot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여러 문항들을 요약된 군집으로 묶고자 사각회전하여 정서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각 요인별로 선정된 정서용어들을 기초로 신뢰도를 Cronbach's α 로 측정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한 통계분석에는 SPSS 10.0을 사용하였다. 또한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에 따라서 정서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대상과 비교결과를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정서경험을 반복측정치로 사용한 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요인부하량과 신뢰도 계수 등을 고려하여 각 요인들을 잘 대표하면서 해당 구성개념을 잘 측정하는 최소한의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항분석하였다. 먼저 정적정서 35개 문항들과 부정적정서 112개 문항들로 이루어진 147개 문항들에 대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요인부하량이 .50 이하인 문항들을 제거하여 110개 문항으로 줄였고,

이 110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 정적정서 33개, 부적정서 77개 문항들로 구분되는 2요인구조가 나타났다. 이후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구분하여 각기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적정서 요인들: 정적정서 33개에 측정치를 기초 요인분석한 결과에서 고유치, 누적분산비율 및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중 요인부하량이 .50이하이거나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들을 제외하여 최종 1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15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15문항에서 세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세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12.02로 전체변량의 80.16%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마다 5문항씩 포함되었으며,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별 요인부하량과 신뢰도 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제 1 요인은 ‘우월정서’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93이며, 총점 문항상관은 .72에서 .88 사이이고, 요인부하량은 최저 .66이었다. 제 2 요인은 ‘기쁨정서’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93이며, 총점 문항상관은 .68에서 .87 사이이고, 요인부하량은 최저 .69이었다. 제 3 요인 ‘안도정서’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93이며, 총점-문항상관은 .59에서 .91 사이이고, 요인부하량은 최저 .65이었다.

표 2. 정적정서를 구성하는 세 요인들의 요인부하량 및 신뢰도 계수

문항	요인부하량	공통분산	문항-전체 상관	자기 문항 재검지 α
제 1 요인: 우월정서				
우월감	.836	.770	.723	.929
승리감	.729	.851	.882	.898
통쾌하다	.717	.708	.752	.924
성취감	.675	.810	.856	.904
자긍심	.657	.821	.852	.905
고유치 4.341, Cronbach's α =.93				
제 2 요인: 기쁨정서				
기쁘다	.788	.837	.862	.911
희망적이다	.774	.687	.682	.945
기분좋다	.768	.839	.864	.910
자랑스럽다	.715	.863	.874	.910
자신감	.694	.827	.850	.913
고유치 4.228, Cronbach's α =.93				
제 3 요인: 안도정서				
마음놓다	.787	.819	.831	.905
느긋하다	.774	.666	.591	.946
안심하다	.686	.867	.910	.889
안정감	.656	.815	.827	.906
안도감	.653	.843	.886	.894
고유치 3.454, Cronbach's α =.93				

부적정서 요인들: 부적정서 77개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기초 요인분석한 결과에서 고유치, 누적분산비율 및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여섯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중 요인부하량이 .50이하이거나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들을 제외하여 최종 3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30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 전체 30문항의 여섯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여섯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24.13으로 전체변량의 80.53%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마다 5문항씩 포함되었으며,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과 신뢰도 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제 1 요인은 ‘열등정서’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94이며, 총점 문항상관은 .80에서 .89 사이이고, 요인부하량은 최저 .74이었다. 제 2 요인은 ‘우울정서’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95이며, 총점-문항상관은 .81에서 .89 사이이고, 요인부하량은 최저 .50이었다. 제 3 요인은 ‘당혹정서’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93이며, 총점 문항상관은 .73에서 .86 사이이고, 요인부하량은 최저 .67이었다. 제 4 요인은 ‘분노정서’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96이며, 총점 문항상관은 .85에서 .92 사이이고, 요인부하량은 최저 .65이었다. 제 5 요인은 ‘자기연민정서’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87이며, 총점-문항상관은 .68에서 .72 사이이고, 요인부하량은 최저 .70이었다. 제 6 요인은 '불안정서'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92이며, 총점-문항상관은 .60에서 .88 사이이고, 요인부하량은 최저 .57였다.

표 3. 부정적정서를 구성하는 여섯 요인들의 요인부하량 및 신뢰도 계수

문항	요인부하량	공통분산	문항-전체상관	자기문항상관 α
제 1 요인: 열등정서				
위축감	.796	.833	.895	.909
기축다	.781	.796	.797	.928
열등감	.780	.777	.804	.926
초라하	.759	.846	.835	.920
무능감	.735	.784	.822	.924
	고유치	4.956, Cronbach's α =.94		
제 2 요인: 우울정서				
의기소침하다	.707	.789	.846	.934
상심하다	.662	.863	.886	.926
울적하다	.579	.858	.869	.929
서글프다	.573	.768	.809	.940
침울하다	.500	.840	.847	.934
	고유치	4.495, Cronbach's α =.95		
제 3 요인: 당혹정서				
황당하다	.842	.848	.862	.900
어이없다	.819	.820	.851	.902
당황하다	.819	.818	.832	.906
기막히다	.803	.742	.774	.918
곤혹스럽다	.667	.713	.732	.925
	고유치	3.962, Cronbach's α =.93		
제 4 요인: 분노정서				
분노하다	.766	.901	.915	.941
부아가 나다	.729	.861	.873	.948
노하다	.701	.852	.853	.951
분하다	.685	.851	.883	.947
울화가 치밀다	.649	.867	.880	.947
	고유치	3.891, Cronbach's α =.96		
제 5 요인: 자기연민정서				
불쌍하다	.813	.727	.708	.847
딱하다	.802	.740	.724	.843
측은하다	.749	.700	.704	.849
가엾다	.735	.717	.683	.853
애처롭다	.695	.757	.708	.849
	고유치	3.556, Cronbach's α =.87		
제 6 요인: 불안정서				
조바심	.755	.843	.839	.887
조급하다	.700	.849	.852	.884
초조하다	.673	.860	.880	.879
안절부절못하다	.621	.754	.771	.901
긴장되다	.566	.755	.600	.934
	고유치	3.299, Cronbach's α =.92		

표 4.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에 따른 각 정서경험의 평균(표준편차)과 변량분석 결과

각 정서	상향비교			하향비교			전체	F 값		
	성공 M (SD)	실패 M (SD)	소계 M (SD)	성공 M (SD)	실패 M (SD)	소계 M (SD)		비교대상	비교결과	대상결과
기쁨정서	4.78(1.48)	1.83(0.91)	3.35(1.93)	4.03(1.60)	1.72(0.84)	3.74(1.69)	3.05(1.89)	8.04**	308.03***	4.49*
우울정서	3.85(1.54)	1.58(1.21)	2.75(1.79)	4.05(1.68)	1.53(0.66)	2.64(1.74)	2.70(1.77)	0.23	227.36***	0.62
안도정서	3.69(1.61)	1.88(1.04)	2.82(1.64)	4.66(1.51)	1.82(0.81)	3.07(1.83)	2.94(1.74)	8.73**	228.08***	11.02***
당혹정서	2.75(1.56)	2.81(1.21)	2.78(1.40)	2.27(1.44)	5.17(1.26)	3.90(1.97)	3.32(1.78)	32.23***	79.14***	73.46***
우울정서	1.74(1.08)	3.41(1.38)	2.54(1.49)	2.01(1.33)	4.18(1.52)	3.22(1.80)	2.87(1.68)	10.21**	139.96***	2.29
분노정서	1.62(1.10)	2.70(1.65)	2.14(1.49)	1.62(1.17)	4.04(1.63)	2.97(1.88)	2.55(1.74)	14.94***	103.26***	15.29***
열등정서	1.79(1.23)	3.90(1.60)	2.81(1.77)	1.81(1.26)	3.76(1.55)	2.90(1.72)	2.85(1.74)	0.13	137.44***	0.22
자기연민정서	2.22(1.24)	2.60(1.36)	2.40(1.31)	2.47(1.37)	2.73(1.41)	2.61(1.39)	2.51(1.35)	1.32	3.91*	0.14
불안정서	1.96(1.23)	3.03(1.48)	2.48(1.45)	2.14(1.27)	3.62(1.53)	2.97(1.60)	2.72(1.54)	5.17*	57.02***	1.48

* $p < .05$, ** $p < .01$, *** $p < .001$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에 따른 정서경험의 차이: 앞에서는 정적정서 3 요인과 부정적정서 6 요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척도들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독립변인 중에서 연구 1에서는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에 따라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두 독립변인에 따라서 정서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업능력 차원에서 비교대상과 비교유형에 따라서 정서반응을 1점에서 7점까지의 척도로 전환하여 각 조건별로 평균을 구하였다. 표 4에는 모든 정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9개 정서에 대해서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효과를 분석한 다변량분석(MANOVA)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각 정서요인별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적정서부터 보면 기쁨의 경우에는 비교대상의 주효과($F(1,275) = 8.94, p < .01$)와 비교결과의 주효과($F(1,275) = 308.03, p < .001$)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F(1,275) = 4.49, p < .05$)이 유의하므로 이에 따라서 해석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패한 경우에 상향비교조건($M = 1.83$)과 하향비교 조건($M = 1.72$)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성공한 경우에 상향비교 조건($M = 4.78$)에서 하향비교 조건($M = 4.03$)보다 기쁨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F(1,275) = 11.78, p < .001$).

우월정서에서는 비교결과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1,275) = 227.36, p < .001$). 즉, 성공한 조건($M = 3.95$)에서 실패한 조건($M = 1.55$)보다 우월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안도정서에서도 기쁨정서와 마찬가지로 비교대상의 주효과($F(1,275) = 8.72, p < .01$)와 비교결과의 주효과($F(1,275) = 228.08, p < .001$) 및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 효과($F(1,275) = 11.02, p < .001$)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패한 경우에 상향비교 조건($M = 1.88$)과 하향비교 조건($M = 1.82$)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성공한 경우에 하향비교 조건($M = 4.66$)에서 상향비교 조건($M = 3.69$)보다 안도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F(1,275) = 18.87, p < .001$).

다음으로 부정정서를 살펴보면, 당혹정서의 경우에는 비교대상의 주효과($F(1,275) = 32.23, p < .001$)와 비교결과의 주효과($F(1,275) = 79.14, p < .001$)가 유의하였다. 또한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F(1,275) = 73.46, p < .001$)도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향비교대상과 비교하여 실패한 조건($M = 2.81$), 상향비교대상과 비교하여 성공한 조건($M = 2.75$) 및 하향비교대상과 비교하여 성공한 조건($M = 2.27$) 간 당혹정서는 차이가 없었고, 전반적으로 경험 수준이 낮았다. 반면에 이 세 조건보다 하향비교대상과 비교하여 실패한 조건($M = 5.17$)에서는 당혹정서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차례대로 $F(1,275) = 106.63, p < .001, F(1,275) = 115.72, p < .001, F(1,275) = 148.39, p < .001$).

열등정서에서는 비교결과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1,275) = 137.44, p < .001$). 즉, 비교에 실패한 조건($M = 3.83$)에서 성공한 조건($M = 1.80$)보다 열등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자기연민정서에서도 비교결과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1,275) = 3.91, p < .05$). 즉, 비교에 실패한 조건($M = 2.67$)에서 성공한 조건($M = 2.34$)보다 자기연민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분노정서에서는 비교대상의 주효과($F(1,275) = 14.94, p < .001$)와 비교결과의 주효과($F(1,275) = 103.26, p < .001$) 및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 효과($F(1,275) = 15.29, p < .001$)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공한 경우에 상향비교 조건($M = 1.62$)과 하향비교 조건($M = 1.62$)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실패한 경우에 하향비교 조건($M = 4.04$)에서 상향비교 조건($M = 2.70$)보다 분노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F(1,275) = 31.73, p < .001$).

다음으로 우울정서에서는 비교대상의 주효과($F(1,275) = 10.21, p < .01$)와 비교결과의 주효과($F(1,275) = 139.96, p < .001$)만 유의하였다. 즉, 하향비교 조건($M = 3.22$)에서 상향비교 조건($M = 2.54$)보다 우울정서 수준이 더 높았고 비교에 실패한 조건($M = 3.79$)에서 성공한 조건($M = 1.87$)보다 우울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불안정서에서는 비교대상의 주효과($F(1,275) = 5.17, p < .05$)와 비교결과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1,275) = 57.02, p < .001$). 즉, 하향비교 조건($M = 2.97$)에서 상향비교 조건($M = 2.48$)보다 불안정서 수준이 더

높았고, 비교에 실패한 조건($M = 3.33$)에서 성공한 조건($M = 2.05$)보다 불안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특히 우울정서와 불안정서에서는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으면서, 비교대상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상향비교할 때보다 하향비교할 때 우울정서와 불안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나 불안은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기만 하여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가적으로 9개 정서들의 상호상관계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상관계수들을 살펴보면, 정적정서들($r = .78 \sim r = .82$) 그리고 부정적정서들($r = .38 \sim r = .84$)간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그리고 정적정서와 부정정서간 부적상관($r = -.27 \sim r = -.56$)도 대부분 유의하였다. 다만 자기연민정서의 경우에는 기쁨정서($r = -.10$), 안도정서($r = -.06$) 및 우울정서($r = .03$)와 0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9개 정서 요인들간 상호상관계수

	기쁨정서	안도정서	우울정서	당혹정서	우울정서	분노정서	열등정서	자기연민정서
기쁨정서								
안도정서								
우울정서	.82***	.80***						
당혹정서	-.34***	-.44***	-.29***					
우울정서	-.55***	-.56***	-.55***	.63***				
분노정서	-.48***	-.51***	-.39***	.72***	.77***			
열등정서	-.55***	-.55***	-.46***	.54***	.84***	.74***		
자기연민정서	-.10	-.06	.03	.38***	.53***	.42***	.55***	
불안정서	-.31***	-.39***	-.27***	.63***	.77***	.70***	.73***	.69***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를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정서들을 이후 실험 연구에서 주종속치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능력차원에서 경험되는 정서들을 일차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학업능력 차원에서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에 따라서 경험되는 정서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적정서는 3요인 구조, 부정정서는 6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이 나타났고, 신뢰도와 타당도도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부가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가지 사회비교 조건에서 나타난 정서경험의 평균 및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에 따라서 정서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9가지 정서유형에서 모두 비교결과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평균값도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방향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연구에서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및 가설 1-4는 모두 지지되었다. 이원상호작용 가설 중에서는 가설 2-1과 가설 2-3이 지지되었고, 가설 2-4는 계획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275) = 12.33, p < .001$). 가설 2-2는 예상하는 방향으로 추세는 나타났지만 계획비교에서 조건 간 차이가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을 통하여 직접 검증하는 것에 비해서 해석에 제약이 따른다. 다만 사회비교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정서경험이 차별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가설을 간접적으로 지지해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우울정서와 열등정서에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이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다른 사회비교 동기에 비해서 자기향상동기가 더 우세한 대학생들이 성공이나 실패하는 상황을 상상할 때에

성공조건에 비해서 실패조건에서 상황의 생생함이 약화되었을 수 있다. 다만 상향비교하여 실패할 때보다 하향비교하여 실패할 때에 다양한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 따라서 상향비교하여 실패할 때보다 하향비교하여 실패할 때에 더 높게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한 우울정서에서는 조건간 계획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상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에서는 열등정서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2: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정서경험

연구 1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비교의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가 정서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가설들을 실험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가적으로 비교동기의 충족수준 척도(한덕웅 등, 2003)를 사용하여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독립변인이 정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교동기의 충족수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과정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실험 절차: 참가자들은 2명씩 함께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문을 읽으면서 진행되었고, 판단능력검사, 주중속치, 조작점검 문항 및 부가적 측정치가 들어있는 설문에 대한 응답도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에 칸막이를 두어서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화면을 볼 수 없었다.

참가자들이 모두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판단능력 수준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판단능력검사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나서 과제에 친숙해지고 키보드 조작에 숙달되도록 예제를 3개 풀어 보았다. 그리고 판단능력검사의 연습과제를 3분간 실시하였다. 이 연습과제는 이후에 과제 점수를 계산하여서 비교대상을 조작하는데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독립변인인 비교목표를 조작하였다. 비교목표는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본과제를 수행하면서 지니고 있어야 하는 목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조작하였다. 실험조건에 따라서 자기향상목표와 자기방어목표 조건별로 미리 정해진 지시문을 화면에 제시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와 아울러 어떤 목표를 지녀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참가자들에게 본과제를 마치고 나면 개인의 판단능력검사 점수를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출한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여서 알려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 때 비교할 사람의 연습과제 점수를 달리 제공하여 두 번째 독립변인인 비교대상을 자기보다 우수하거나 혹은 낮은 점수로 조작하여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본과제를 5분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독립변인인 비교결과를 자기가 타인보다 잘한 성공 혹은 못한 실패로 조작하였다. 비교결과에서 성공이나 실패는 본과제 전에 미리 컴퓨터가 정해진 사람과 자신이 본과제에서 얻은 점수를 모두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작하였다.

자신과 비교대상의 본과제 점수를 화면을 통해 읽고 나면, 다음 화면에서 주중속치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한번에 하나씩 제시되는 정서 측정치를 읽고 그 정서를 얼마나 높게 경험하는지 응답하였다. 주중속치에 응답하고 나면 비교대상 선택을 측정하였고, 다음으로 조작점검 문항에 응답하였다. 한덕웅과 장은영의 연구(2003)에서 개발한 비교동기의 충족수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포함된 부가적 측정치에 응답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피험자: 성균관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남녀 학생들 중 131명이 참가하였다. 이 중에서 측정치를 모두 완성하지 않거나 조작점검 문항에서 잘못 응답한 11명은 제외시키고, 120명이 8개 조건에 15명씩 무선할당되었다. 실험은 2003년 6월 10일부터 2003년 7월 3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실험설계: 2(사회비교의 목표 : 자기향상/자기방어)×2(비교대상 : 상향/하향)×2(비교결과 : 성공/실패)로 3개의 독립변인이 모두 집단간 변인인 삼원 완전무선 요인설계였다.

독립변인 조작

① 사회비교의 목표 :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본과제를 수행하면서 지녀야 하는 목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조작하였다. Bargh(1990; Stapel & Koomen, 2001)의 목표점화 기법과 유사하게 사회비교의 목표들을 각 조건별로 조작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향상목표 조건에서는 본 연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유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관심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본과제를 마치고 나서 컴퓨터가 정해진 사람과 자신의 점수를 비교할 때에 자신의 판단능력을 증진시키고 유능성을 높여서 과제수행의 능력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도록 지시하였다. 자기방어목표 조건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손상당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관심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본과제를 마치고 나서 컴퓨터가 정해진 사람과 자신의 점수를 비교할 때에 자신의 자존심이 손상당하지 않게 자신의 자존심을 방어하는데 목표를 두도록 지시하였다.

② 비교대상 : 참가자들에게 본과제를 마치고 나면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출한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여 개인의 판단능력검사 점수를 알려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비교할 사람이 연습과제에서 얻은 점수를 개인이 얻은 득점보다 각각 높거나 낮다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비교대상을 조작하였다. 참가자들은 본인과 비교대상의 연습과제 점수를 비교한 그래프와 함께 비교한 결과를 설명한 글을 읽고 비교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읽었다: 상향비교 대상조건에서는 앞으로 당신의 본과제 결과를 비교하게 될 이 사람은 100점 만점으로 볼 때 당신보다 평균 20점 더 높다고 알려주었다. 하향비교 대상조건에서는 앞으로 당신의 본과제 결과를 비교하게 될 이 사람은 100점 만점으로 볼 때 당신보다 평균 20점 더 낮다고 알려주었다. 모든 조건에서 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작하는 데 대한 의심을 줄이기 위하여 19, 20 및 21 중에서 각 실험조건별로 동일한 비율이 되도록 하나씩 제시되도록 사전에 계획하였다.

③ 비교결과 : 과제를 마치고나서 비교대상과 자신이 본과제에서 얻은 점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작하였다. 참가자들은 본과제 점수를 비교하여 설명해주는 그래프와 함께 아래에 제시된 지시문을 읽었다. 성공조건에서는 컴퓨터가 선택해 준 사람보다 참가자의 본과제 점수가 20점 더 높다고 알려주었다. 실패조건에서는 컴퓨터가 선택해 준 사람보다 참가자의 본과제 점수가 20점 더 낮다고 알려주었다. 단 점수 차이를 19, 20 및 21 중에서 하나가 각 실험조건별로 동일한 비율로 제시되도록 사전에 계획하였다.

종속변인 측정: 본과제 점수를 보고나면 참가자들에게 검사 개발에 참고가 되도록 몇가지 질문에 응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정서 측정치(표 6)가 컴퓨터 화면에 한번에 하나씩 제시되었고 참가자들은 각 정서를 현재 어느 정도나 높게 경험하는지 7점 척도(0: 전혀 느끼지 않는다; 6: 매우 많이 느낀다)로 응답하였다. 응답하는 순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4 유형이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이 중 한 유형에 응답하였다

표 6. 연구 4에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

기쁨정서	안도정서	우울정서	열등정서
기쁘다	마음놓다	상심하다	기죽다
자랑스럽다	안심하다	울적하다	위축감
기분좋다	안도감	침울하다	열등감
희망적이다	안정감	서글프다	초라하다
자신감	느긋하다	의기소침하다	무능감

결 과

독립변인 조작효과

사회비교 목표의 조작효과는 ‘당신은 본과제 점수를 컴퓨터가 정해진 사람과 비교할 때에 자신의 유능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두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2(사회비교의 목표: 자기향상/자기방어) × 2(비교대상: 상향/하향) × 2(비교결과: 성공/실패)로 변량분석한 결과, 사회비교 목표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1,112) = 13.79, p < .001, \omega^2 = .09$). 즉, 자기향상목표 조건($M = 4.80$)에서 자기방어목표 조건($M = 3.93$)보다 자신의 유능성을 높이는데 더 관심을 두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당신은 본과제 점수를 컴퓨터가 정해진 사람과 비교할 때에 자신의 자존심이 손상당하지 않는데 관심을 두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2(사회비교의 목표: 자기향상/자기방어) × 2(비교대상: 상향/하향) × 2(비교결과: 성공/실패)로 변량분석한 결과, 사회비교 목표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1,112) = 34.63, p < .001, \omega^2 = .22$). 즉, 자기방어목표 조건($M = 4.88$)에서 자기향상목표 조건($M = 3.32$)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손상당하지 않는데 더 관심을 두었다고 응답했다.

비교대상의 조작효과는 ‘연습과제 후 컴퓨터가 정해진 사람은 당신에 비해 연습과제 점수가 더 좋은 편이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2(사회비교의 목표: 자기향상/자기방어) × 2(비교대상: 상향/하향) × 2(비교결과: 성공/실패)로 변량분석한 결과, 비교대상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1,112) = 193.75, p < .001, \omega^2 = .63$). 즉, 상향비교 조건($M = 5.76$)에서 하향비교 조건($M = 2.58$)보다 비교대상의 연습과제 점수가 더 좋았다고 응답했다. ‘연습과제 후 컴퓨터가 정해진 사람은 당신에 비해 연습과제 점수는 어떤 편이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2(사회비교의 목표: 자기향상/자기방어) × 2(비교대상: 상향/하향) × 2(비교결과: 성공/실패)로 변량분석한 결과, 비교대상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1,112) = 219.67, p < .001, \omega^2 = .65$). 즉, 상향비교 조건($M = 5.58$)에서 하향비교 조건($M = 2.90$)보다 자신에 비해서 비교대상의 연습과제 점수가 더 좋았다고 응답했다.

비교결과의 조작효과는 ‘본과제에서 당신은 컴퓨터가 정해진 사람보다 더 잘한 편이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2(사회비교의 목표: 자기향상/자기방어) × 2(비교대상: 상향/하향) × 2(비교결과: 성공/실패)로 변량분석한 결과, 비교대상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1,112) = 703.96, p < .001, \omega^2 = .84$). 즉, 실패조건($M = 5.42$)에서 성공조건($M = 2.15$)보다 비교대상의 본과제 점수가 더 좋았다고 응답했다. ‘본과제에서 당신과 컴퓨터가 임의로 정해진 사람의 점수는 어떤 편이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2(사회비교의 목표: 자기향상/자기방어) × 2(비교대상: 상향/하향) × 2(비교결과: 성공/실패)로 변량분석한 결과, 비교대상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1,112) = 363.52, p < .001, \omega^2 = .75$). 즉, 실패조건($M = 5.57$)에서 성공조건($M = 2.67$)보다 자신에 비해서 비교대상의 본과제 점수가 더 좋았다고 응답했다.

정서별 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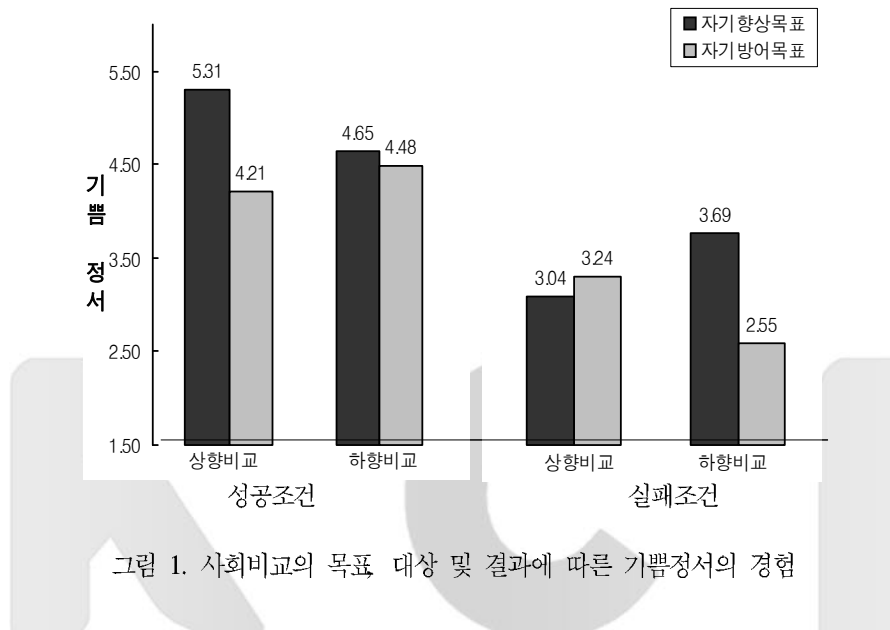
기쁨정서: 사회비교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에 따른 조건별로 경험한 기쁨정서의 평균값은 그림 1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2(사회비교의 목표: 자기향상/자기방어) × 2(비교대상: 상향/하향) × 2(비교결과: 성공/실패)로 변량분석하였는데 사회비교 변인들로 기쁨정서의 42.4%를 설명했다.

먼저 비교결과의 주효과가 유의했다($F(1,112) = 64.43, p < .001, \omega^2 = .32$). 구체적으로 비교에 성공한 조건($M = 4.67$)에서 실패한 조건($M = 3.13$)보다 기쁨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가설 1-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비교 목표의 주효과가 유의했다($F(1,112) = 8.37, p < .01, \omega^2 = .04$). 구체적으로 자기향상목표 조건($M = 4.17$)에서 자기방어목표 조건($M = 3.62$)보다 기쁨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는 유의한 삼원상호작용 효과로 해석에 제한이 있다($F(1,112) = 8.78, p < .01, \omega^2 = .04$). 삼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성공 및 실패조건으로 나누어서 단순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각각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각각, $F(1,112) = 7.67, p < .01, \omega^2 = .03$,

$F(1,112) = 6.21, p < .05, \omega^2 = .03$. 먼저 성공조건에서 상향비교한 경우에 사회비교 목표에 따라서 기쁨정서가 달라졌다($F(1,112) = 8.22, p < .01, \omega^2 = .04$). 구체적으로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M = 5.31$)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M = 4.21$)보다 기쁨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가설 3-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F(1,112) = .21, n.s.$), 상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M = 4.76$)에서 하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M = 4.57$)보다 기쁨정서 수준이 더 높지 않아서($F(1,112) = .53, n.s.$)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바는 아니지만, 실패조건에서 하향비교한 경우에 사회비교 목표에 따라서 기쁨정서가 달라졌다($F(1,112) = 8.99, p < .01, \omega^2 = .04$). 구체적으로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M = 2.55$)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M = 3.69$)보다 기쁨정서 수준이 더 낮았다.



열등정서: 사회비교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에 따른 조건별로 경험한 열등정서의 평균값은 그림 2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2(사회비교의 목표 자기향상 자기방어) $\times$ 2(비교대상 상향 하향) $\times$ 2(비교결과 성공 실패)로 변량분석하였는데 사회비교 변인들로 열등정서의 31.5%를 설명했다.

먼저 비교결과의 주효과가 유의했다($F(1,112) = 30.03, p < .001, \omega^2 = .18$). 구체적으로 비교에 실패한 조건($M = 3.65$)에서 성공한 조건($M = 2.58$)보다 열등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가설 1-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비교 목표와 비교대상의 유의한 이원상호작용 효과($F(1,112) = 4.32, p < .05, \omega^2 = .20$),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유의한 이원상호작용 효과($F(1,112) = 5.29, p < .05, \omega^2 = .03$) 및 유의한 삼원상호작용 효과($F(1,112) = 9.21, p < .01, \omega^2 = .05$)로 해석에 제한이 있다.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교에 실패한 조건에서 비교대상의 단순주효과가 유의하였다($F(1,112) = 5.44, p < .05, \omega^2 = .02$). 구체적으로 상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M = 3.98$)에서 하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M = 3.33$)보다 열등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사회비교 목표와 비교대상의 이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상향비교 조건에서 사회비교 목표의 단순주효과가 유의하여서($F(1,112) = 4.58, p < .05, \omega^2 = .02$), 사회비교 목표에 따라서 열등정서를 달리 경험하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한 조건($M = 3.51$)에서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한 조건($M = 2.92$)보다 열등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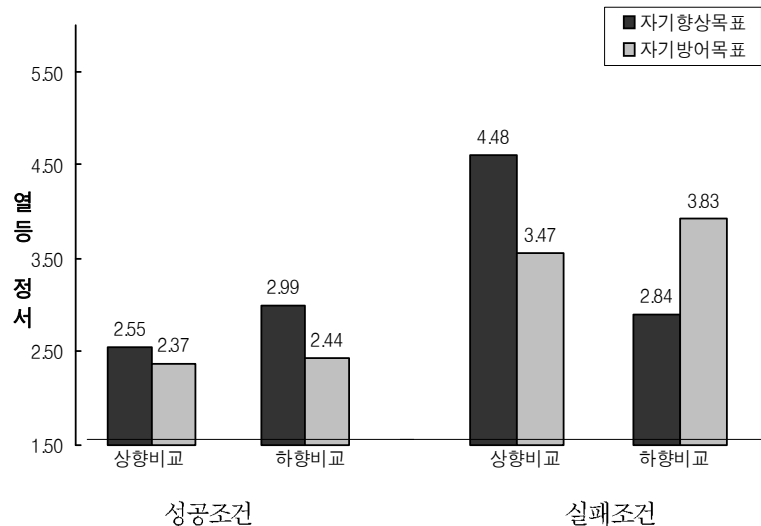


그림 2.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열등정서의 경험

또한 삼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패조건에서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F(1,112) = 13.07, p < .001, \omega^2 = .07$). 구체적으로 실패조건에서 상향비교한 경우에 사회비교 목표에 따라서 열등정서가 달라졌다($F(1,112) = 6.66, p < .01, \omega^2 = .03$). 즉,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M = 4.48$)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M = 3.73$)보다 열등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가설 3-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바는 아니지만, 실패조건에서 하향비교한 경우에 사회비교 목표에 따라서 열등정서가 달라졌다($F(1,112) = 6.40, p < .05, \omega^2 = .03$). 구체적으로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M = 3.83$)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M = 2.84$)보다 열등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안도정서: 사회비교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에 따른 조건별로 경험한 안도정서의 평균값은 그림 3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2(사회비교의 목표 자기향상 자기방어) $\times$ 2(비교대상 상향 하향) $\times$ 2(비교결과 성공 실패) 로 변량분석하였는데 사회비교 변인들로 안도정서의 36.4%를 설명했다.

먼저 비교결과의 주효과가 유의했다($F(1,112) = 46.13, p < .001, \omega^2 = .25$). 구체적으로 비교에 성공한 조건($M = 4.45$)에서 실패한 조건($M = 3.43$)보다 안도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가설 1-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비교대상의 주효과가 유의했다($F(1,112) = 7.55, p < .01, \omega^2 = .04$). 구체적으로 하향비교 조건($M = 4.15$)에서 상향비교 조건($M = 3.73$)보다 안도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는 사회비교 목표와 비교결과의 유의한 이원상호작용 효과($F(1,112) = 4.18, p < .05, \omega^2 = .02$)와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유의한 이원상호작용 효과($F(1,112) = 5.13, p < .05, \omega^2 = .02$)로 해석에 제한이 있다.

사회비교 목표와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공 조건과 실패조건에서 각각 단순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각각, $F(1,112) = 2.31, p < .10, F(1,112) = 1.86, n.s.$). 다만 성공했을 때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한 조건($M = 4.60$)에서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한 조건($M = 4.31$)보다 안도정서 수준이 더 높은 경향만 나타났다($F(1,112) = 2.31, p < .10, \omega^2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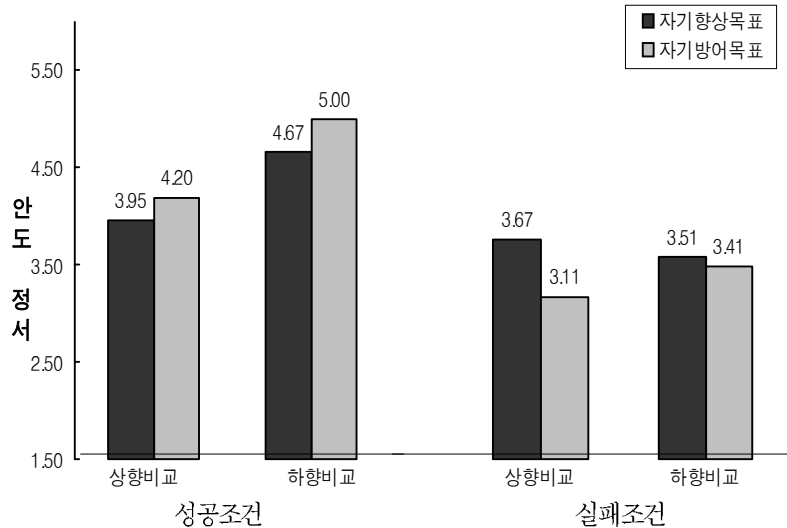


그림 3.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안도정서의 경험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교에 성공한 조건에서 단순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112) = 12.55, p < .01, \omega^2 = .07$). 구체적으로 하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 ($M = 4.83$)에서 상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 ($M = 4.07$)보다 안도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가설 2-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서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우울정서: 사회비교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에 따른 조건별로 경험한 우울정서의 평균값은 그림 4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2(사회비교의 목표: 자기향상/자기방어) $\times$ 2(비교대상: 상향/하향) $\times$ 2(비교결과: 성공/실패)로 변량분석하였는데 사회비교 변인들로 우울정서의 44.2%를 설명했다.

먼저 비교결과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1,112) = 65.43, p < .001, \omega^2 = .32$). 구체적으로 비교에 실패한 조건 ($M = 4.35$)에서 성공한 조건 ($M = 2.65$)보다 우울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가설 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비교대상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1,112) = 6.17, p < .05, \omega^2 = .03$). 구체적으로 하향비교 조건 ($M = 3.76$)에서 상향비교 조건 ($M = 3.24$)보다 우울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는 사회비교 목표와 비교결과의 유의한 이원상호작용 효과 ($F(1,112) = 5.48, p < .05, \omega^2 = .02$) 및 유의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F(1,112) = 5.41, p < .05, \omega^2 = .02$)로 해석에 제한이 있다.

사회비교 목표와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공 조건에서 사회비교 목표의 단순주효과가 유의했다 ($F(1,112) = 8.01, p < .01, \omega^2 = .03$). 성공했을 때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한 조건 ($M = 3.07$)에서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한 조건 ($M = 2.23$)보다 우울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삼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패조건에서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112) = 8.34, p < .01, \omega^2 = .04$). 특히 실패조건에서 하향비교한 경우에 사회비교 목표에 따라서 우울정서가 달라졌다 ($F(1,112) = 5.68, p < .05, \omega^2 = .02$). 구체적으로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M = 4.05$)보다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M = 5.05$) 우울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가설 3-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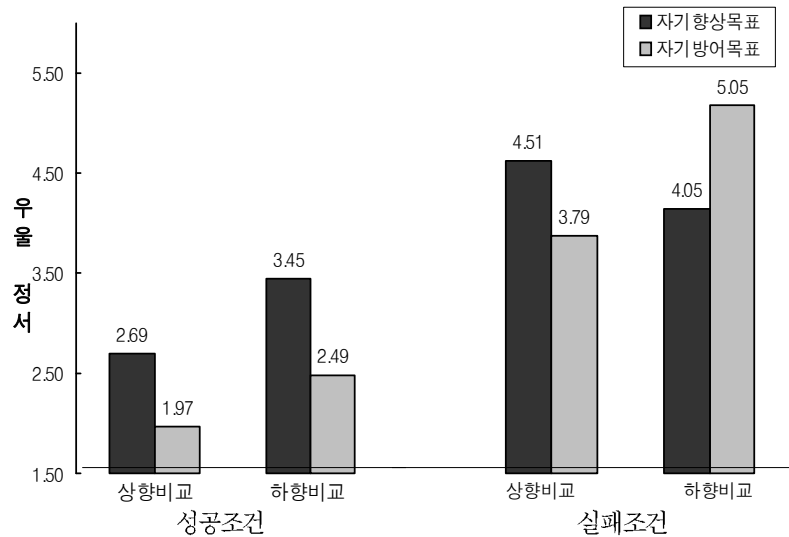


그림 4.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우울정서의 경험

그러나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F(1,112) = .32, n.s.$), 하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 ($M = 4.55$)에서 상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 ($M = 4.15$)보다 우울정서 수준이 더 높지 않아서 ($F(1,112) = 1.84, n.s.$),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사회비교 과정에서 비교동기가 정서경험에 미치는 매개과정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의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에 따라서 사회비교 동기의 충족수준이 달라지고 이 충족수준에 따라서 정서경험이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작점검문항에 참여자가 평정한 값들을 사용하여 사회비교의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의 주효과, 이원상호작용 효과 및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기쁨정서와 열등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이 매개하는지 Baron과 Kenny(1986)가 권고한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서 검증하였다. 그리고 안도정서와 우울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방어동기의 충족수준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모두 입증되는 경우에는 수정된 Sobel검증 기법(Kenny, Kashy & Bolger, 1998)에 의해서 간접경로가 0보다 유의하게 더 큰지 검증하고, 유의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표 7.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와 정서(C)간 향상동기 충족수준(B)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A)	기쁨정서(C)					열등정서(C)				
	A→B	A→C	B→C	A→(B)→C	매개효과	A→B	A→C	B→C	A→(B)→C	매개효과
사회비교 목표 대상 결과	.31***	.43***	.44***	.32***	부분	.31***	-.16†	-.26**	-.08	완전
사회비교 목표 비교대상	.08	.20*	.44***	.16†	.	.08	-.06	-.26**	-.08	.
사회비교 목표 비교결과	.42***	.46***	.44***	.34***	부분	.42***	-.19*	-.26**	-.09	완전
비교대상×비교결과	.35***	.42***	.44***	.30**	부분	.35***	-.20*	-.26**	-.12	완전
사회비교 목표	.13	.21*	.44***	.15	.	.13	-.07	-.26**	-.11	.
비교대상	-.05	.04	.44***	.06	.	-.05	-.08	-.26**	-.06	.
비교결과	.62***	.58***	.44***	.49***	부분	.62***	-.43***	-.26**	-.43***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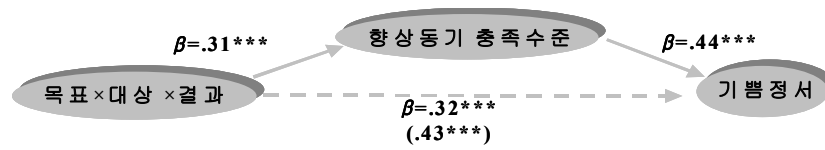


그림 5. 사회비교의 목표와 대상 및 결과가 항상동기 충족수준의 매개로 기쁨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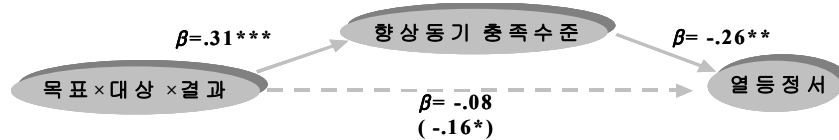


그림 6. 사회비교의 목표와 대상 및 결과가 항상동기 충족수준의 매개로 열등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7에는 사회비교의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가 항상동기 충족수준의 매개역할에 의해서 기쁨정서와 열등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사회비교의 목표 × 비교대상 × 비교결과와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기쁨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항상동기 충족수준에 의해서 부분 매개됨을 알 수 있다($Z = 3.72, p < .001$). 이 내용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비교의 목표 × 비교대상 × 비교결과와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열등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항상동기 충족수준에 의해서 완전 매개됨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그림 6에 제시하였다. 특히 기쁨정서는 항상동기 충족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고($\beta = .44, p < .001$), 열등정서는 항상동기 충족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졌다($\beta = -.26, p < .01$).

표 8에는 사회비교의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가 방어동기 충족수준의 매개역할에 의해서 안도정서와 우울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사회비교의 목표 × 비교대상 × 비교결과와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안도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방어동기 충족수준에 의해서 완전 매개됨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그림 7에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비교의 목표 × 비교대상 × 비교결과와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우울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방어동기 충족수준에 의해서 부분 매개됨을 알 수 있다($Z = 2.79, p < .01$). 이 내용은 그림 8에 제시하였다. 특히 안도정서는 방어동기 충족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고($\beta = .46, p < .001$), 우울정서는 방어동기 충족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졌다($\beta = -.35, p < .01$).

표 8.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와 정서(C)간 방어동기 충족수준(B)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 (A)	안도정서(C)					우울정서(C)				
	A→B	A→C	B→C	A→(B)→C	매개효과	A→B	A→C	B→C	A→(B)→C	매개효과
사회비교 목표 대상 결과	.31***	.19*	.46***	-.05	완전	.31***	-.33***	-.35***	-.25**	부분
사회비교 목표 비교대상	-.03	.12	.46***	.11	.	-.03	-.03	-.35***	-.05	.
사회비교 목표 비교결과	.33***	.32***	.46***	.19*	부분	.33***	-.26**	-.35***	-.16†	부분
비교대상 비교결과	.47***	.25*	.46***	.04	완전	.47***	-.51***	-.35***	-.44***	부분
사회비교 목표	.04	.01	.46***	.03	.	.04	-.12	-.35***	-.10	.
비교대상	.02	.21*	.46***	.22**	부분	.02	-.18*	-.35***	-.17*	.
비교결과	.60***	.51***	.46***	.37***	부분	.60***	-.57***	-.35***	-.56***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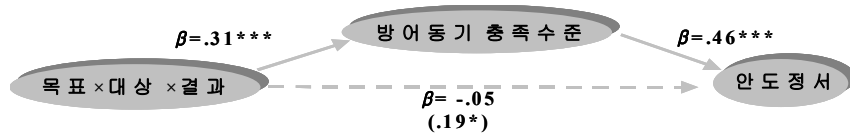


그림 7. 사회비교의 목표와 대상 및 결과가 방어동기 충족수준의 매개로 안도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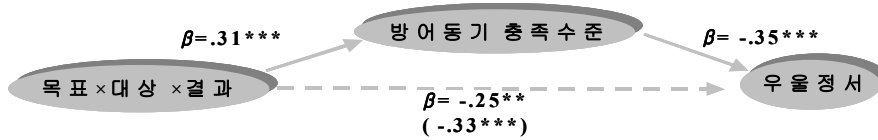


그림 8. 사회비교의 목표와 대상 및 결과가 방어동기 충족수준의 매개로 우울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논 의

연구 2에서는 사회비교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가 정서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 방법으로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자기향상목표 혹은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상향비교 혹은 하향비교하여 성공 혹은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후 기쁨, 열등감, 안도감 및 우울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비록 연구 1이 정서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연구 1에서 얻은 결과들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분석한 결과와 연구 2에서 얻은 결과를 정서별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등정서 경험에 대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교에 실패한 조건에서 성공한 조건보다 열등감 수준이 더 높아서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또한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보다 상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열등정서 수준이 더 높아서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그리고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보다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열등정서 수준이 더 높아서 가설 3-2가 지지되었다. 연구 1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해보면 가설 1-2는 일관되게 지지되었고, 비교에 실패한 조건 ($M = 3.13$)에서 성공한 조건 ($M = 4.42$)보다 향상동기 충족수준이 더 낮았다.

가설 2-2는 연구 1에서는 지지되지 않았으나 연구 2에서는 지지되었다. 연구 1에서는 상향비교하여 실패한 상황을 상상하도록 하였으나 연구 2에서는 실험실에서 검사를 받고 상향비교하여 실제로 실패한 상황을 조작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 1에서는 상향비교하여 실패하는 상황을 대학생들이 덜 생생하게 상상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연구 2에서는 각 조건간 생생함의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자기향상동기와 관련이 높은 열등정서가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상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M = 2.89$)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M = 3.36$)보다 향상동기 충족수준이 더 낮은 추세를 보여서, 열등정서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울정서 경험에 대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교에 실패한 조건에서 성공한 조건보다 우울정서 수준이 더 높아서 가설 1-4가 지지되었다. 또한 비교에 실패한 조건 ($M = 2.78$)에서 성공한 조건 ($M = 4.27$)보다 방어동기 충족수준이 더 낮았다.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보다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우울정서 수준이 더 높아서 가설 3-4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상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보다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우울정서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지 않아서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연구 1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해보면 가설 1-4는 일관되게 지지되었으나, 가설 2-4는 연구 1과 연구 2에서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상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 ($M = 3.03$)보다 하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 ($M = 2.56$)에서 방어동기 충족수준이 더 낮은 추세를 보였으나 자기방어동기는 하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보다 상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에서 더 높았다. 따라서 상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에서도 자기방어동기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어서 우울정서가 높아지므로 두 조건간 우울정서가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도정서와 우울정서에서 비교대상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였고, 이는 연구 1의 결과와 일관된다. 따라서 안도정서와 우울정서는 자신보다 못한 하향비교 대상을 접하기만 하여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안도하면서도 불편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Wills(1981)의 제안과도 일관된다.

셋째, 기쁨정서 경험에 대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교에 성공한 조건에서 실패한 조건보다 기쁨 수준이 더 높아서 **가설 1-1**이 지지되었다. 그리고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보다 기쁨정서 수준이 더 높아서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하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보다 상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 기쁨정서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지 않아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연구 1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해보면, **가설 1-1**은 일관되게 지지되었고, 비교에 성공한 조건($M = 4.42$)에서 실패한 조건($M = 3.13$)보다 항상동기 충족수준이 더 높았다. 그리고 비록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향상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M = 4.78$)에서 고양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M = 4.30$)보다 항상동기 충족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가설 2-1**은 연구 1에서는 지지되었으나 연구 2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연구 2의 결과를 보면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에서 전체적으로 기쁨정서를 높게 경험하였으며 사회비교 목표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연구 1과 달리 연구 2에서 자기향상목표가 더해지면서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한 것만으로도 기쁨정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M = 4.54$) 하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M = 4.30$)보다 항상동기 충족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지 않아서 기쁨정서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안도정서 경험에 대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교에 실패한 조건보다 성공한 조건에서 안도감 수준이 더 높아서 **가설 1-3**이 지지되었다. 또한 상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보다 하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 안도정서 수준이 더 높아서 **가설 2-3**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보다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성공했을 때 안도정서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지 않아서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연구 1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해보면, **가설 1-3**과 **가설 2-3**이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그리고 비교에 성공한 조건($M = 4.27$)에서 실패한 조건($M = 2.78$)보다 방어동기 충족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비교대상과 비교결과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상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M = 4.08$)보다 하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M = 4.46$)에서 방어동기 충족수준이 더 높은 추세를 보여서 안도정서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어동기 충족수준에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M = 4.70$)에서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M = 4.22$)보다 방어동기 충족수준이 더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도정서에서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고 기쁨정서에서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은 점은 하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에서 전체적으로 기쁨정서와 안도정서 경험 수준이 높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과 하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에서 각각 항상동기 충족수준($M = 4.54$, $M = 4.30$)과 방어동기 충족수준($M = 4.08$, $M = 4.46$)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에 성공하는 조건에서는 그 대상이 상향비교 대상이건 하향비교 대상이건 항상동기와 방어동기를 충족시키는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향비교하여 성공한 조건에서 기쁨정서($M = 4.56$)와 안도정서($M = 4.83$) 경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 논의

연구 1에서는 비교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 유형들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척도들을 사용하여 사회

비교의 자기조절 과정이론에서 제안하는 가설들을 연구 2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사회비교 후 비교대상의 선택, 정서경험, 주관안녕, 건강지각 및 우울증을 다루면서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존심의 영향을 알아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하향비교를 더 많이 추구하거나(Crocker & Schatz, 1985; Crocker, Thompson, McGraw, & Ingerman, 1987) 혹은 그와 반대로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하향비교를 더 많이 추구하는(Wheeler et al, 1992) 등 비일관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또한 상향비교 후 정적정서 경험이 높아지기도 하고(Tesser et al, 1988), 신체질병이나 우울증을 지닌 사람들이 상향비교를 더 선호한 연구들도 있다(Taylor, Aspinwall, Guiliano, Dakof, & Reardon, 1993). 이에 더해 하향비교 후 오히려 부적정서 경험이 높아지기도 하고(Aspinwall et al, 1993), 주관안녕이나 건강지각이 낮아지기도 하였다(Wood et al, 1985).

이와 같이 비일관되는 결과들은 사회비교 과정에서 여러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합한 이론들이 아직 부족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 모순되는 결과들을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직 미흡하며 사회비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들을 일관되게 예측할 수 있는 설명들도 여전히 부족하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순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비교 과정이 두 가지 경로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 한덕웅(1999; 한덕웅, 장은영, 2003)의 사회비교의 자기조절 과정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비교의 자기조절 과정이론에서는 우세해진 사회비교 동기와 비교동기의 충족수준에 따라서 비교대상 선택, 정서경험, 주관안녕, 건강지각, 자기평가 등이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비교 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의 유형을 가려내고, 이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연구 1), 사회비교가 정서경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연구 2).

비록 연구 1과 연구 2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부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비교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사회비교의 자기조절 과정이론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예측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가적 측정치로 얻은 비교동기의 충족수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비교의 자기조절 과정이론에 의해서 자기향상동기의 충족수준과 자기방어동기의 충족수준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예측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한다.

매개분석에서도 사회비교의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의 삼원상호작용이 열등정서 경험에 미치는 효과는 향상동기 충족수준에 의해서 완전 매개되었다. 그리고 기쁨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부분 매개되었다. 또한 사회비교의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의 삼원상호작용이 안도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방어동기 충족수준에 의해서 완전 매개되었고, 우울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부분 매개되었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보면 선행연구에서 비교결과에 따라 정서경험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측정치를 사용한 점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정적 혹은 부적정서 측정치에 어떠한 정서 유형을 알아보는 문항이 더 많이 포함되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의 목표, 비교대상 및 비교결과가 네 가지 정서 유형별로 달리 영향을 미치는 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 유형에 따라서 특정한 정서 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조건을 알아낸 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기쁨정서와 열등정서는 자기향상동기의 충족수준과 관련이 있고, 안도정서와 우울정서는 자기방어동기의 충족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마음에 충족을 얻어서 기쁨을 경험하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마음에 충족을 얻어서 안도감을 경험한다는 점은 직관이나 상식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아서 열등감을 경험하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아서 우울을 경험한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조사연구를 통해서 기쁨, 안도감, 우울감, 고요함, 성취감, 존경심, 이완감, 자긍심 등 여러 정적정서들 중에서 사회비교의 동기가 충족될 때 경험하는 정서를 추출했고, 우울, 불안, 열등감, 분노, 당혹감, 자기연민, 불쾌함, 수치심,

경멸감, 무능감 등 여러 부정정서들 중에서 사회비교의 동기가 좌절될 때 경험하는 정서를 추출해 냈다. 또한 실험을 통해서 자기향상 및 자기방어의 동기가 우세했다가 충족되거나 좌절되는 상황을 조작하여 조사연구를 통해서 추출해 낸 정서들이 실제로 높게 경험되는 점을 입증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 중에서 기쁨정서에서 사회비교 목표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기향상의 목표를 설정하면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할 때보다 기쁨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였다. 따라서 자기향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상향비교하여 성공하면 기쁨정서를 경험하지만, 상향비교하여 성공했다는 결과를 제공받기 전에 자기향상의 목표만 설정하더라도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할 때보다 기쁨정서를 더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추론해보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잘했다는 점을 알게 되거나 혹은 수행에서 성공을 경험하는 경우에서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자신의 유능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고자 마음먹게 되면 기쁨과 같은 긍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장은영과 한덕웅(2004)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에 따라서 우세하게 경험하는 정서와 비교하고자 선택하는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사회비교 후에 사회비교의 동기에 따라서 비교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며, 비교동기의 충족수준에 따라서 정서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할 수 있다.

각 비교동기의 충족수준이 높거나 낮아진다고 예상한 조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향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하여 성공하면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이 높아지므로 다른 조건들보다 기쁨정서를 높게 경험한다. 또한 자기향상의 동기가 상당히 충족되지만, 여전히 자기향상의 동기 수준이 높게 유지되어서 상향비교하려 한다. 반면에 자기향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향비교하여 실패하면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이 낮아지므로 다른 조건들보다 열등정서를 높게 경험한다. 이 조건에서는 자기향상의 동기를 다시 충족시키고자 상향비교하거나 비교대상을 한 단계 낮추어서 유사비교하려 한다.

그러나 장은영과 한덕웅(2004)의 연구에서 종속치로 다른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을 및 본 연구에서 종속치로 다른 안도정서 경험에서 모두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서 해석에 제한이 따른다. 이를 고려하여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향비교하여 성공하면 방어동기의 충족수준이 높아지므로 다른 조건들보다 안도정서를 높게 경험한다. 이 조건에서는 자기방어의 동기가 충족되어서 비교대상을 높여서 상향비교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향비교하여 실패하면 방어동기의 충족수준이 낮아지므로 다른 조건들보다 우울정서를 높게 경험한다. 특히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였으나 비교에 실패하게 되면 다른 조건들보다 우울정서를 높게 경험하고, 자기방어동기가 높게 유지되어서 하향비교하려 한다. 다만 장은영과 한덕웅(2004)의 연구에서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에 실패한 조건에서 성공한 조건보다 하향비교대상의 선택율이 더 높은 경향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우울정서가 높아지는 조건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응용심리의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정서가 방어동기의 충족수준과 상관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향비교하였으나 실패했을 때 우울정서가 가장 높게 경험되고, 이 과정에서 방어동기의 충족수준이 매개역할을 하는 점도 알아냈다. 이에 근거하여 우울한 사람들은 본래 자기방어동기는 강하지만 이 동기가 일상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하여서 지속적으로 우울을 높게 경험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사회비교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다룬 선행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연결해 볼 수 있다. 먼저 한덕웅과 임광원(2002)의 연구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실패환류를 제공받고 앞으로 한 번 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 과제에서 점수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나 낮다고 알려주어서 향상가능성지각을 조작하였다. 또한 과제를 마치고나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 혹은 우수한 사람과 결과를 비교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독립변인을 조작하고 나서 부정적서의 경험을 측정하였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하향비교하더라도 이후 자신의 향상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게 되면 부정적서의 경험이 향상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한 조건보다 더 낮았다. 이를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연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연구 2에서 기쁨정서에서 사회비교 목표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자기향상의 목표는 자기향상의 동기를 우세하게 만든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향상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게 되면 사회비교의 목표 개입 경로가 작동하고 자기향상의 동기가 높아진다. 이 관점에 근거하여 추론하면 향상가능성지각이 높은 조건에서는 낮은 조건보다 기쁨정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안도정서에서 비교대상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따라서 비록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앞으로 자신의 향상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결과를 비교하게 되면 기쁨정서와 안도정서를 경험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부정정서를 경험한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한편 한덕웅과 장은영(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의 목표를 설정하여 사회비교의 동기가 우세해지는 조건을 조작하고 수행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앞으로 사회비교하게 된다고 예상하도록 만들어 주면 초조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에서 자기향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에서 성공하면 실패했을 때보다 앞으로 상향비교하게 된다고 예상하더라도 초조정서를 낮게 경험했다. 이 조건에서는 자기향상의 목표로 인해서 자기향상의 동기가 우세했고 성공경험으로 이 동기가 충족된 수준이 높아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쁨정서를 높게 경험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상향비교하더라도 이 대상은 자기향상의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하므로 부정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로 인해 이 조건에서 초조정서를 낮게 경험하게 된다. 반면에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수행에서 실패하면 성공한 조건보다 자기방어의 동기가 충족된 수준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서 우울을 비롯하여 불안, 분노, 당혹감 혹은 자기연민과 같은 부정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조건에서는 앞으로 자기방어의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할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자기방어동기의 충족수준은 낮으므로 초조정서를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강하게 경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결과로 사회비교의 자기조절 과정이론을 검증하고 확장할 수 있고,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과 시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에서 유사비교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상황을 다루지 않아서 이 정서가 자기평가동기와 상관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연구 2에서도 자기평가목표를 다루지 않아서 자기평가동기와 상관있는 정서가 높거나 혹은 낮게 경험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장래 연구에서 자기평가동기와 상관이 높은 정서를 측정하는 척도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목표를 다루지 않았다. 자기향상이나 자기방어목표가 능력 차원에서 주로 설정되는 사회비교의 목표라면, 자기평가목표는 의견 차원과 같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는 차원에서 주로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비교의 목표가 더 자주 혹은 더 높게 설정되는 비교 차원이 다를 수 있고, 자기평가목표가 능력 차원에서 설정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능력 차원에서 설정된 자기향상 및 자기방어목표 효과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능력차원에서 비교하는 상황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능력차원에서 자기향상 동기가 높은 대학생이 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능력 차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능력과 같이 우열이 명확하기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열이 명확하지 않은 차원에서 비교가 이루어지면 본 연구에서 다룬 비교대상이나 비교결과는 그 조작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 자기평가동

기가 우세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연구1에서는 능력차원에서 정서적도를 개발하였으므로 능력 이외의 영역에서 사회비교할 때 경험되는 정서의 유형과 그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대학생들이었다. 대학생들은 다른 표본 집단에 비해서 자기향상동기가 높아서 이 요인과 관련되는 변인들 역시 사회비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은 본래 자기향상 목표를 설정한 수준이 다소 높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특정한 비교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그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장차 본래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비교는 개인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점을 의식하는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각하는 영역 내에 타인이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으나 비교하게 되거나 혹은 비교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른 종속치인 정서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과 비교하고 그 비교 결과는 무엇인지 개인이 의식하는 상황에서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정서가 높아지는 원인 중의 하나로 사회비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우울증환자나 우울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비교 경험이 현재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장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혜자, 한덕웅 (2000). 정서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자기차이 이론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7(1), 51-67.
- 장은영, 한덕웅 (1999). 비교대상의 선택에서 환류유형, 비교속성 및 통제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3(2), 201-217.
- 장은영, 한덕웅 (2004).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가 비교대상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8(2), 65-89.
- 한덕웅 (1999). 사회비교의 목표와 성공/실패 경험에 따른 비교대상의 선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11-329.
- 한덕웅, 엄광은 (2002). 사회비교에서 실패와 향상가능성에 따른 부정 자기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2), 75-87.
- 한덕웅, 장은영 (2000).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성공실패에 따른 자기 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3), 109-123.
- 한덕웅, 장은영 (2003). 사회비교가 분노경험, 주관안녕 및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85-112.
- Alicke, M. D., LoSchiavo, F. M., Zerbst, J., & Zhang, S. (1997). The person who outperforms me is a genius: Maintaining perceived competence in upward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781-789.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3).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direction, threat, and self-esteem on affects, self-evaluation, and expected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08-722.
- Bargh, J. A. (1990). Auto-motives: Preconscious determinants of social interac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2, pp. 93-130). New York: Guilford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uunk, B. P., Collins, R. L., Taylor, S. E., VanYperen, N. W., & Dakof, G. A. (1990). The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Either direction has its ups and dow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38-1249.
- Buunk, B. P., Schaufeli, W. B., & Ybema, J. F. (1994). Burnout, uncertainty, and the desire for social comparison among nurs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701-1718.
- Crocker, J., & Schwartz, I. (1985). Prejudice and ingroup favoritism in a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Effects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 379-386.
- Crocker, J., Thompson, L. L., McGraw, K. M., & Ingerman, C. (1987). Downward comparison prejudice and evaluations of others: Effects of self-esteem and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907-916.
- Dunning, D. (1995). Trait importance and modifiability as factors influencing self-assessment and self-enhancement 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1297-1306.
- Festinger, L. A.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 117-140.
- Gibbons, F. X., & McCoy, S. B. (1991). Self-esteem, similarity, and reactions to active versus passive downward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14-424.
- Hakmiller, K. L. (1966). Threat as a determinant of downward comparis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32-39.
- Higgins, E. T. (1996). The "self digest": Self-knowledge serving self-regulatory fun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062-1083.
- Kenny, D. A., Kashy, D. A., & Bolger, N. (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1, pp. 233-265). Boston, MA: McGraw-Hill.
- Kurman, J., & Eshel, Y. (1998). Self-enhancement, generality level of self-evaluation, and 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 549-563.
- Lassiter, G. D., & Munhall, P. J. (2001). The genius effect: Evidence for a nonmotivational interpre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349-355.
- Levine, J. M., & Green, S. M. (1984). Acquisition of performance information: The roles of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compari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385-393.
- Marsh, H. W., & Parker, J. W. (1984). Determinants of students self-concept: Is it better to be a relatively large fish in a small pond even if you don't learn to swim as we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213-231.
- Morse, S., & Gergen, K. J. (1970). Social comparisons,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48-156.
- Radloff, R. (1966). Social comparison and ability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Suppl. 1, 6-26.

- Reis, T. J., & Gibbons, F. X. (1993). Social comparison and the pill: Reactions to upward and downward comparison of contraceptive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13-20.
- Salovey, P., & Rodin, J. (1984).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ocial-comparison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80-792.
- Smith, R. H. (2000). Assimilative and contrastive emotional reactions to upward and downward social comparisons. In J. Suls & L. Wheeler (Eds.), *Handbook of social comparison: Theory and research* (pp. 173-200). New York: Plenum.
- Stapel, D. A., & Koomen, W. (2001). I, we, and the effects of others on me: How self-construal moderates social comparison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766-781.
- Taylor, S. E., Aspinwall, L. G., Guiliano, T. L., Dakof, G. A., & Reardon, K. (1993). Storytelling, social comparison, and cop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171-1195.
- Taylor, S. E., Wayment, H. A., & Carillo, M. (1996).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Motivation and cognition* (pp. 3-27). New York: Guilford Press.
- Tesser, A., Miller, M., & Moore, J. (1988). Some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and reflection processes: The pain and pleasure of being clo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303-311.
- Testa, M., & Major, B. (1990). The impacts of social comparisons after failure: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1, 205-218.
- Trope, Y. (1980). Self-assessment, self-enhancement, and task prefer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16-129.
- Trope, Y., & Neter, E. (1994). Reconciling competing motives in self-evaluation: The role of self-control in feedback see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646-657.
- Wheeler, L. (1966). Motivation as a determinant of upward comparis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Suppl. 1*, 27-31.
- Wheeler, L.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In J. Suls & L. Wheeler (Eds.), *Handbook of social comparison: Theory and research* (pp. 141-158). New York: Plenum.
- Wheeler, L., & Miyake, K. (1992). Social comparison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760-773.
- Wills, T. 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 245-271.
- Wood, J. V., Giordano-Beech, M., Taylor, K. L., Michela, J. L., & Gaus, V. (1994). Strategies of social comparison among people with low self-esteem: Self-protection and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713-731.
- Wood, J. V., Taylor, S. E., & Lightman, R. R. (1985). Social comparison in adjustment to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169-1183.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Goal, Target, and Outcome on Self-relevant Emotions

Jang, EunYoung Hahn, Doug-Woong

Sungkyunkwan University

On the basis of the self-regulation theory of social comparisons processes(Hahn, 1999, Hahn & Jang, 2003), we developed the scale of emotions which were experienced by social comparison and then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on the experience of emotion through an laboratory experiment. In study 1, we developed the emotion scales. Two hundreds and seventy-five students responded to one of four questionnaires. Comparison target(upward/downward) and comparison result(sucess/failure) were factorially combined to make four types of questionnaires.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their current experience level on each 147 emotions with seven-point scales. A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ed in three positive emotion scales and six negative scales: delightfulness, superiority, relief, confusion, depression, anger, inferiority, pity and anxiety. In study 2, a 2(Social comparison goal : self-promotion/self-protection)×2(comparison target : upward/ downward)×2(comparison outcome : success/failure) complete factorial design was used. Dependent measures were obtained from four types of emotion scales developed in study 1. One hundred and twenty colleg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8 experimental condition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level of delightfulness was higher in the self-promotion goal/upward comparison/sucess condition than that in the self-enhancement goal/upward comparison/sucess condition, 2) level of inferiority was higher in the self-promotion goal/upward comparison/failure condition than that in the self-enhancement goal/upward comparison/failure condition, 3) level of relief was higher in the downward comparison/sucess condition than that in the upward comparison/sucess condition, and 4) level of depression was higher in the self-enhancement goal/downward comparison/failure condition than that in the self-promotion goal/downward comparison/failure condition. Finally, the result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dded.

Key words : social comparison, self-relevant emotions, experience of emotion, social comparison motive, fulfillment level of social comparison motive, social comparison goal, social comparison target